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진로 독서에 활용할 수 있는 글의 유형 중 하나는 전기류이다. 전기류란 실제 인물의 생애를 쓴 글로, 전기문이나 자서전이 이에 해당한다. 전기류는 인물의 생애 전부를 다루거나 인물의 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는 특정 일화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그리고 전기류에는 인물의 성장 과정, 업적 등의 주요 사건이 주로 시간순으로 제시되며, 인물에게 영향을 미친 주변 인물과의 관계와 인물이 살았던 시대적 상황이 드러난다. 전기문의 경우 작가의 인물 평가가 추가되기도 한다.

전기류를 활용한 진로 독서는 네 단계에 걸쳐 수행할 수 있다. 첫째, 자신의 진로 분야와 관련이 있는 인물에 대한 책을 고르고, 배경지식을 활성화한다. 둘째, 인물이 진로와 관련하여 겪은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인물의 삶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인물의 성공과 실패 경험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인물에게 나타난 변화를 파악한다. 그리고 글을 읽다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에 관한 배경지식을 보강한다. 셋째, 주체적으로 인물을 평가한다. 이때 인물의 삶을 맹목적으로 긍정하기보다 자신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글을 다 읽기 전까지는 인물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으므로 인물에 대한 최종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물의 삶과 나의 삶을 연결해 본다. 책을 읽으며 인물의 삶을 이해한 후 자기를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물을 더 깊게 파악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도 심화될 수 있다.

진로 탐색을 위해 전기류를 읽을 때 다양한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배경지식을 보강하거나 인물을 평가할 때 참고 자료를 활용하면 유용하다. 책을 고를 때도 희망 진로 분야의 추천 도서 목록과 같은 참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인물의 삶을 파악할 때는 도해 조직자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도해 조직자는 글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구조화한 것으로, 사건을 시간순으로 나타낸 순서도나 인물 간 관계를 나타낸 인물망 등이 그 예이다. 인물과 자신을 비교할 때는, 대립되는 특성을 양 끝에 표시하고 인물과 자신이 각각 어디에 더 가까운지 3, 5, 7단계 등으로 평가하는 대립 척도표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해 인물과 자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독자는 전기류를 읽으며 진로 탐색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타인의 삶을 통해 자기를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진로에 대한 가치관과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전기류는 주요 사건을 주로 시간순으로 제시한다.
② 전기류는 인물의 성장 과정이나 업적을 소재로 삼는다.
③ 전기류에는 인물이 주변 인물과 맺는 관계가 나타난다.
④ 전기류는 인물의 특정 일화가 아닌 생애 전부를 다룬다.
⑤ 전기류에는 인물에 대한 작가의 평가가 나타나기도 한다.

2. 전기류를 활용한 진로 독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물에 대한 이해는 자기 성찰을 거쳐 심화될 수 있다.
② 인물에 대한 최종 판단을 책을 다 읽은 후로 미룰 수 없다.
③ 인물의 실패 경험에서는 인물에게 나타난 변화를 이해할 수 없다.
④ 허구적 인물을 다룬 글을 읽으며 긍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
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인물의 행적을 수용했을 때 인물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3. <보기>는 학생이 쓴 독서록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요리를 좋아하는 나는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인터넷에서 찾다가 30년 전에 활동한 요리사 A의 자서전인 『요리사의 식탁』을 발견하였다. 다른 독자들이 쓴 서평을 보니 이 책에 내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 읽어 보기로 했다. 책을 읽으면서 A가 요리사가 되기로 결심한 일, 시행착오를 겪은 일 등을, 사건의 전개 과정을 나타내는 순서도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주방을 묘사한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 당시의 주방 사진이 포함된 글을 찾아 읽었다. 이를 통해 열악했던 당시의 조리 환경을 알 수 있었다. 자서전을 다 읽은 뒤 A를 다룬 칼럼을 찾아 읽었다. 칼럼에서 내가 동의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점검하고, 결론적으로 A는 자신만의 철학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메뉴 개발에 도전한 요리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이후 '끈기 있는-끈기 없는'을 적고, A와 내가 각각 어디에 가까운지 점수로 표시한 후, 판단의 이유를 생각해 보았다. 이를 통해 나도 요리사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① 인물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참고 자료를 읽고 자신의 관점에서 인물을 주체적으로 판단하였다.
② 읽을 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참고 자료를 읽고 책의 내용이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될지 판단하였다.
③ 자신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에서, 대립 척도표를 활용하여 인물과 자신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④ 배경지식을 보강하는 과정에서, 도해 조직자를 활용하여 인물이 살았던 시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였다.
⑤ 인물의 삶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도해 조직자를 활용하여 인물이 진로와 관련하여 겪었던 사건들을 정리하였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간의 이익을 위해 인간 이외의 종(種)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 정당할까? 이를 정당화하는 방법은 우리가 속한 종의 이익이 다른 종의 이익보다 우선시된다는 종 차별주의를 옹호하는 것이다. 종 차별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그 존재 자체로 도덕적 지위를 가지므로 도덕적 고려 대상이다. 이에 반해 ㉠ 인간 이외의 다른 종은 도덕적 지위가 없거나, 인간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 누군가의 소유인 동물에게 해를 입히면 그 사람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옳지 않고, 동물에게 잔인한 행동을 하면 그 행위자의 심성이 포악해지므로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종 차별주의는 인간에게만 존재하고 다른 종에게는 없는 고유한 특징이 있고, 이 특징이 도덕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점으로 옹호된다. 흔히 인간은 다른 종에는 없는 복잡한 사고 능력, 도덕적 이상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 등의 고차원적 정신 능력을 갖추고 있기에 다른 종과 ⓐ 구별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고차원적 정신 능력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도덕적인 판단과 행위를 자율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능력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인간의 특징을 설명하면 사고로 고차원적 정신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인간의 범주에 들어오기 어렵고, 인간에 근접한 정신 능력이 있는 일부 영장류는 인간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고차원적 정신 능력이 인간과 다른 종을 구별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라면 이러한 정신 능력의 수준에 따라 인간을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차별도 정당화되어야 한다.

종 차별주의는 우리가 다른 종과 달리 인간 종에게 특별한 유대감을 갖고 있으므로 다른 종보다 인간 종에게 특혜를 줘야 한다는 주장으로 옹호되기도 한다.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유대감을 갖는 현상이나 같은 집단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우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인간 종 전체에서의 유대감은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인간이 같은 집단 사람들에게 유대감을 갖는 현상은 혈연 등으로 연결된 소규모 인간 집단 내에서 주로 나타나며, 이를 벗어나면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또한 인간들 간에 유대감을 가진다는 것은 사실일 뿐, 규범 원칙이 아니다. 어떤 현상을 있는 대로 기술한 사실을 전제로 우리의 행동이 어떠해야 한다는 보편적 규범 원칙을 논리적으로 이끌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인간 중심적 종 차별주의는 인간과 동물의 종적 차이를 주장하기 위해 고차원적 정신 능력을 갖춘 도덕적 행위자라는 인간의 특징을 방어벽으로 내세웠다. 전통적 윤리의 관점에서는 인간 행위자를 도덕적 행위자로 인정하지만, 그 이외의 행위자는 도덕적 행위자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인간의 종적 우월성을 강화하는 이러한 견해의 기저에는 도덕적 행위의 원천인 '행위자'의 범주와 도덕적 배려의 대상인 '피행위자'의 범주가 일치해야 한다고 보는 표준적 입장이 있다.

하지만 전통적 윤리의 관점과 달리 고도의 지능을 갖춘 인공 지능을 인공 행위자이자 도덕적 행위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방법론들이 제시되었다. 그중 하나로 ㉮ 윤리적 행동주의가 있다. 이 방법론에 따르면 도덕적 지위는 서로 다른 두 실재 사이의 자유 의지, 의도, 의식 등과 같은 형이상학적 속성의 동등성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인식 가능한 행동의 동등성을 비교하여 추론할 수 있다. 이는 형이상학적 속성을 존재론적으로 부정하거나 그 속성이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행동과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 대신 형이상학적 속성에 대한 인식론적 한계를 인정하고 도덕적 지위의 판단은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행동의 패턴에 근거해야 함을 말한다. 따라서 인공 행위자가 인간과 그 행동에 있어서 대략적으로 동등하면, 인간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지위를 그 인공 행위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존슨은 인식론적 방법론에 근거한 탈형이상학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해서 윤리적 행동주의가 곧장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독립성 논변'을 제시한다. 이는 인공 행위자 X가 도덕적 행위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X는 존재론적으로 다른 실재 Y로부터 온전히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스미즈는 다른 실재 간 행동의 동등성이 도덕적 지위의 인식론적 증거일 수는 있지만, 본질적 근거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어떤 실재에 도덕적 지위를 ⓑ 부여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실재의 행동으로부터 그 지위를 정당화하는 형이상학적 속성에로의 추론이 본질적으로 요구된다고 말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 중심의 종 차별주의는 인공 지능의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담론에 의해서 약화되지 않는다.

4. (가)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간을 위해 다른 종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부당하다면 인간의 이익을 다른 종의 이익에 비해 우선시할 수 없다.
② 인간에게만 있는 고유한 특징으로 종 차별주의가 옳다는 것을 지지하려면 이 특징이 도덕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한다.
③ 고차원적 정신 능력이 인간과 다른 종을 구별하는 기준이라면 영장류의 일부는 인간과 동일한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된다.
④ 인간이 같은 종의 구성원에게 유대감을 갖는다는 사실에서 인간 종을 우대해야 한다는 보편적 원칙을 도출할 수 없다.
⑤ 혈연관계와 같은 소규모 인간 집단에서 나타나는 유대감은 인간이 인간 종 전체에 대해 느끼는 유대감으로부터 기인한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5.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고도의 지능을 갖춘 인공 지능의 등장은 인간의 종적 우월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② 전통적 윤리의 관점에서는 인간 행위자와 인공 행위자 둘 다 도덕적 행위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 인공 행위자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행동주의 방법론은 도덕적 행위자의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인식론적 한계를 인정한다.
④ 존슨은 어떤 인공 행위자가 도덕적 행위자인지를 판단하려면, 그 인공 행위자와 다른 실재 사이의 존재론적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⑤ 스미즈는 탈형이상학적 입장에 반대하며, 도덕적 지위를 정당화하는 행동에 관한 인식론적 증거를 거부한다.

6. ㉮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어떤 실재의 형이상학적 속성은 그 속성 자체의 특성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해야 한다.
② 인공 행위자의 도덕적 지위는 그 행위자의 행동과 인간의 행동을 기반으로 추론할 수 있다.
③ 어떤 실재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이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외적 활동은 존재론적으로 일치한다.
④ 서로 다른 두 실재가 동등한 수준의 자유 의지를 가진다면, 두 실재는 동등한 수준의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⑤ 인간의 마음 상태는 경험적으로 인식할 수 없지만,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인공 행위자의 행위를 통해 알 수 있다.

7. 표준적 입장의 관점에 따라 ㉠, ㉡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간을 제외한 다른 종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 내용은, 인간 이외의 종은 '피행위자'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하겠군.
② 다른 종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기대어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된다는 ㉠의 내용은, '피행위자'의 범주가 '행위자'와의 관계에 의해 달라짐을 의미하겠군.
③ 다른 종에 대한 도덕적 고려는 인간과의 관계에 의해서 인정된다는 ㉠의 내용은, 다른 종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위자'의 범주에 포함됨을 의미하겠군.
④ 타인이 소유한 동물에게 해를 입히는 ㉡의 사례는,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행위자'인 다른 종과 인간의 권리가 모두 침해된 경우이겠군.
⑤ 동물을 대상으로 한 잔인한 행동이 그 행동을 한 사람의 심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 사례는, '피행위자'인 다른 종에게 영향을 준 행위가 '행위자'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이겠군.

8.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어떤 개체가 '인격체'이거나 '인격 종'의 구성원이라면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여기서 인격체란 합리적 판단 능력과 시간이 흘러도 지속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의식하는 자의식을 가진 존재이다. 인격 종이란 자연 종의 하나로서 그 종의 구성원이 전형적으로 인격체인 종을 말하며, 인간이 그러한 인격 종이다. 여기서 '전형적'이라는 말은 대부분의 구성원이 인격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의 대표적인 구성원이 인격체라는 것이다. 더불어 어떤 개체가 현재 인격체에 요구되는 특징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속성 P를 갖는다면 인격 종에 포함될 수 있다. 이때 P는 어떤 실재 Z가 현재 상황에서는 인격체가 아니라도 실제로 인격체일 수 있었다는 그런 속성이다.

① '속성 P'를 고려하면, (가)에서 제시된 '사고로 고차원적 정신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사고 후에도 인격 종에 포함되므로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
② 인간은 '인격 종의 구성원'이기에 도덕적 지위를 부여받는다는 내용을 고려하면, (가)에서 제시된 '정신 능력의 수준'은 인간 종 내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
③ '전형적'을 종의 대표적 구성원의 특징이라고 한 점을 고려하면, (가)에서 제시된 '고차원적 정신 능력'을 대표하는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능력은 인간 종 전체의 특징이다.
④ 인격 종의 구성원을 '자연 종'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고려하면, (나)에서 제시된 '인공 행위자'는 그가 지닌 뛰어난 능력과 관계없이 '도덕적 행위자'가 될 수 없다.
⑤ 도덕적 지위를 가진 '인격체'가 자기의 존재를 의식한다는 특징이 있음을 고려하면, (나)에서 제시된 '형이상학적 속성'은 어떤 실재에 대한 도덕적 지위의 근거가 된다.

9. 문맥상 ⓐ,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
①	다르다고	주기
②	다르다고	가지기
③	갈린다고	가지기
④	갈라진다고	주기
⑤	갈라진다고	더하기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정에 공급되는 전원은 220 V, 주파수가 60 Hz인 교류 전원으로 초당 60번 크기와 방향이 규칙적으로 바뀐다. 그러나 우리가 쓰는 소형 전기 기기들은 5 V에서 12 V 정도의 직류 전원을 공급해야 작동한다. 따라서 220 V의 높은 교류 전압을 낮은 직류 전압으로 바꾸어 주는 어댑터를 사용해야 한다.

어댑터에는 선형 방식과 스위칭 방식이 있다. ㉠ 선형 방식은 변압기, 정류기, 평활 회로, 정전압 소자로 구성된다. 변압기는 입력되는 전압에 변화가 생기면 자기장이 유도되어 출력 측에 발생하는 교류 전압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장치이다. 전원이 공급된 후, 변압기를 통과하면서 크게 낮아진 교류 전압은 정류기에서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전압으로 바뀐다. 그런데 이 전압은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해 평활 회로가 사용된다. 평활 회로에는 에너지 저장 소자가 있어, 전압이 높을 때 일시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전압이 낮아질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여 전압 변동을 억제한다. 어댑터에서 출력되는 전압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이를 사용하는 전기 제품이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출력 전압이 고정된 정전압 소자를 이용하여 안정화된 직류 전원을 만든다. 예를 들어 5 V 정전압 소자에 출력 전압보다 높은 9 V 전압이 들어오면, 4 V에 해당하는 전력을 열로 소모하고 필요한 5 V만 출력한다.

선형 방식은 구성이 간단하지만, 전력 손실이 많고 열 발생이 과도하면 회로가 파손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입력 전압의 주파수가 낮을수록 변압기의 크기가 커서 주파수가 낮으면 어댑터의 크기가 클 수밖에 없다. 현재는 선형 방식의 단점을 해결하고 소형화, 전력의 고효율화를 이룬 스위칭 방식이 주로 사용되지만, 선형 방식도 특별한 경우에 사용되고 있다.

㉡ 스위칭 방식은 선형 방식과 동일한 기능의 전기 소자들이 사용되며, 정전압 소자를 사용하는 대신 스위치를 제어하여 원하는 전압을 만들어 낸다. 먼저 220 V 교류 전압이 정류기와 평활 회로를 거치며 변동이 적은 전압으로 바뀐다. 이 전압은 변화가 적어 변압기에 입력되어도 변압기의 출력 측에 전압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반도체로 만들어진 스위치를 사용하여 이 전압을 변화가 심한 전압으로 바꾼다. 스위치가 '온'인 동안은 입출력의 전압이 같아지고, '오프'인 동안은 전압이 발생하지 않는데, 스위치는 대략 10～500 kHz 사이의 주파수로 온과 오프를 주기적으로 반복한다. 이때 한 주기 내에서 온 되어 있는 시간의 비율을 나타내는 온오프비에 따라 변압기에서 출력되는 전압이 달라진다. 그 비율이 커지면 출력 전압이 높아지고, 비율이 작아지면 전압이 낮아진다. 변압기에서 출력된 교류 전압은 다시 정류기와 평활 회로를 거쳐 어댑터의 최종 출력 전압이 된다. 이때 안정화된 직류 전원을 만들기 위해 비교 회로를 이용하여 최종 출력 전압이 기준 전압과 같아지도록 한다. 비교 회로는 최종 출력 전압을 기준 전압과 비교하여 스위치의 온·오프를 조정하는 신호를 생성한다. 스위칭 방식은 열로 소모되는 전력이 적지만, 스위치의 온·오프에 의해 생긴 전압 변동이 온·오프 신호와 동일한 주파수의 노이즈로 남아 최종 출력 전압과 함께 출력된다.

1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변압기는 교류 전압을 높게 만들 수 있다.
② 스위치는 온·오프를 통해 전압 변동을 억제한다.
③ 정전압 소자는 출력 전압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④ 가정에 공급되는 전원이 사용되는 어댑터는 높은 교류 전압을 낮은 직류 전압으로 변환해 준다.
⑤ 선형 방식에서 정류기는 방향이 바뀌는 전압을 입력받아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전압을 출력한다.

11. 특별한 경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전원 장치의 전력 효율이 높아야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② 소형화된 기계에 맞게 어댑터의 크기를 줄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③ 전력 손실을 적게 하기 위해 전기 소자를 많이 써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④ 발열에 의한 회로의 손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전원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⑤ 최종 출력 전압에 불필요한 전압 변동이 남아 있으면 기기의 작동 성능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2.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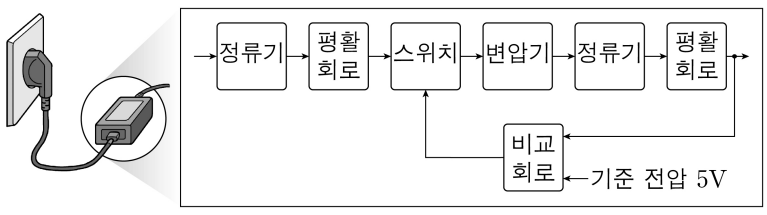
① 공급되는 전원이 직류이면 ㉠과 ㉡ 모두 변압기에 출력 전압이 발생하겠군.
② ㉠의 정류기에 입력되는 교류 전압은 ㉡의 첫 번째 정류기에 입력되는 교류 전압보다 높겠군.
③ 어댑터의 출력을 바꾸려면 ㉠은 출력이 다른 정전압 소자로 교체하고, ㉡은 비교 회로의 기준 전압을 바꾸면 되겠군.
④ 변압기에 입력되는 전압의 주파수가 ㉠에 비해서 ㉡이 높으므로, ㉠에서 사용하는 변압기의 크기가 ㉡에서보다 작겠군.
⑤ 남는 전력을 ㉠에서는 열에너지로 소모하지만, ㉡은 에너지 저장 소자에서 전압 변동을 크게 만드는 형태로 소모하겠군.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스위칭 방식의 어떤 어댑터에 220 V, 60 Hz의 전원이 공급되고 있고, 온·오프 신호의 주파수는 100 kHz이며 기준 전압이 5 V이다. 어떤 순간에 최종 출력 전압이 4.5 V이고 이때 비교 회로 출력의 온오프비가 10%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전원 입력에서 변압기의 입력까지를 일차 측이라 하고, 변압기의 출력에서 어댑터의 최종 출력까지를 이차 측이라고 한다.



① 스위치가 계속 온 되어 있으면 변압기를 지난 교류 전압이 5 V까지 점점 높아지겠군.
② 최종 출력 전압에는 스위치를 지난 전압에 있는, 주파수가 100 kHz인 노이즈가 포함되어 있겠군.
③ 일차 측 평활 회로를 지난 전압은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하고, 전압 변동이 적은 상태이겠군.
④ 이차 측 평활 회로를 지난 전압이 기준 전압에 비해 낮으므로 한 주기 내에서 스위치가 오프 되어 있는 시간은 줄어들겠군.
⑤ 스위치가 온 되어 있는 동안 스위치의 입력 전압은 스위치의 출력 전압과 동일하고, 오프 되어 있는 동안 스위치의 출력 전압은 0 V가 되겠군.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리더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을 이끌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 인물이다. 이와 관련하여 리더와 구성원이 서로 신뢰하는 관계인지, 리더가 구성원의 창의성을 자극하는지, 구성원에게 어떤 방식으로 동기를 부여하는지 등이 연구되어 왔다. 이들 연구가 기업 같은 정형적 조직의 리더와 구성원 간 관계에 주목한다면, 커뮤니케이션 영역의 오피니언 리더에 관한 연구와 같이 비정형적 환경의 리더에 주목하는 접근도 있다. 오피니언 리더는 미디어에서 획득한 정보를 주위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이다.

20세기 중반, 주류 미디어인 신문, 잡지, 라디오를 통해 선거 캠페인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당시 선거 캠페인의 영향력을 연구하던 라자스펠트와 그의 동료들은 뜻밖의 현상을 발견하였다. ㉠ 미디어가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미친 영향력이 미미하였던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결과가 오피니언 리더의 영향력에서 비롯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핵심적 요소로 하여 커뮤니케이션 2단계 유통 이론을 정립하였다. 이 이론은 미디어 이용자를 상호 고립되어 원자화된 존재로 파악한 대중 사회 이론의 가정을 ⓐ 벗어나 가족, 친구와 같은 1차적 사회 집단의 유대 관계에 주목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학의 영역을 대인 커뮤니케이션으로 확장했다. 또한 미디어가 이용자들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입장을 위축시켰고, 이를 계기로 미디어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 주류로 부상하였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에 근거한 연구들이 지속되어 왔다.

오피니언 리더는 자신이 정보 제공자로서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자부심을 가진다. 이들 중 상당수는 남보다 먼저 새로운 것을 수용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선구자,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전문가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대인 관계의 중심에 선다. 오늘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용자의 정보 선택을 돕고 인터넷 생태계를 지속 가능한 공론장으로 만드는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이 커졌다. 이들은 일반 이용자보다 뉴스 사이트, 온라인 플랫폼, 신문, 텔레비전 등의 이용 동기도 높고 실제로 이들 미디어를 더 많이 이용한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확대되면서 미디어 기반 정보 제공자라는 기존의 역할을 넘어 자신이 정보를 창출해 일반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 커뮤니케이션 2단계 유통 이론에 대한 ㉯ 비판론은, 이 이론이 일반 이용자가 오피니언 리더의 개입 없이도 미디어에서 정보를 직접 획득한다는 점과, 정보 수용 방식에 있어 항상 수동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였다고 비판한다. 또한 한 분야에서 오피니언 리더의 위치를 가진 사람이 다른 분야에서는 일반 이용자의 위치를 가질 수 있음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미디어에서 나온 정보의 흐름은 2단계 외에 1단계로, 또는 3단계 이상의 과정을 거쳐 일반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다단계로도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비판론의 취지를 수용한 커뮤니케이션 연구들이 여러 영역에서 펼쳐지고 있다.

14.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오피니언 리더가 가지는 자부심은 정보 제공자로서의 역할 수행과 관계가 있다.
② 기업 내에서의 리더와 구성원 간 관계에 주목하여 오피니언 리더 연구가 시작되었다.
③ 오피니언 리더는 다른 사람들에 앞서 새로운 것을 수용하여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도 한다.
④ 미디어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입장의 부상은 미디어가 즉각적인 효과를 지닌다는 입장의 위축과 관계가 있다.
⑤ 라자스펠트와 그의 동료들이 발견한 현상은 커뮤니케이션학의 영역을 대인 커뮤니케이션으로 확장한 계기가 되었다.

15.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당시 유권자들이 상호 고립되어 원자화된 미디어 이용자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② 유권자의 정보 선택을 돕는 이들이 주류 미디어를 지속 가능한 공론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③ 1차적 사회 집단의 유대 관계에 기반한 정보 제공자들의 존재가 미디어의 효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④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전문가들이 당시 주류 미디어를 통해 전개된 선거 캠페인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⑤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대인 관계를 중시하는 전문가들이 정보의 유통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6. ㉮, ㉯의 입장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갑'과 '을'은 공공 이슈와 패션에 관심이 많다. '갑'은 공공 이슈와 관련하여 주위 사람들보다 미디어를 더 많이 이용한다. 여기서 얻은 정보에 의견을 더해 친구들에게 전달하며 이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한다. 패션과 관련하여서는 미디어를 많이 이용하는 주위 전문가로부터 정보를 얻는 입장인데, 그가 말하는 대로 패션 상품을 구입하기보다 그 정보가 자기에게 맞는지를 가려 선별적으로 수용한다.

'을'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패션 정보를 획득하려는 동기가 주위 사람들보다 더 높고 패션에 관한 정보를 직접 생산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빈번히 올리며 영향력을 발휘한다. 공공 이슈 분야의 정보는 뉴스 사이트 기사에서 직접 얻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정보는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전문가인 친구가 신문을 읽고 전달해 주는 것을 믿고 수용한다.

① ㉮에 따르면, 갑이 공공 이슈 분야의 정보에 대해 보인 행위로 보아, 갑은 공공 이슈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이군.
② ㉮에 따르면, 을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양상으로 보아, 을은 오피니언 리더로서 정보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는군.
③ ㉯에 따르면, 갑이 패션 분야의 정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보아, 일반 이용자가 항상 수동적인 것은 아니군.
④ ㉯에 따르면, 을이 공공 이슈 분야의 정보에 대해 보인 행위로 보아, 미디어 정보는 일반 이용자에게 다단계로 유통되는 점을 ㉮가 간과한 것이군.
⑤ ㉯에 따르면, 을이 공공 이슈 분야와 패션 분야에서 점하는 위치로 보아, 동일인이라도 분야별로 오피니언 리더 여부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가 간과한 것이군.

17. 문맥상 ⓐ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① 새장을 <u>벗어난</u> 작은 새가 훨훨 날아올랐다.
② 동생은 터널을 <u>벗어나</u> 넓은 길로 들어섰다.
③ 그들은 대열을 <u>벗어나</u> 잠시 휴식을 취했다.
④ 오늘 우리는 고생을 <u>벗어나</u> 매우 행복하다.
⑤ 우리는 규범을 <u>벗어난</u> 행동을 하지 않는다.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장 소저가 이 참정의 권함으로 인하여 과거를 보러갈새 마음에 생각하되,

[A] '내가 사 년을 남복(男服)으로 세상에 용납하니 사람들이 다 남자로 알고, 부친이 만 리 절역에서 원한을 품고 세상을 떠나시되 신원할 사람이 없으니, 내 만일 여자이나 과거에 급제하면 위로는 부친의 원한을 씻고, 더하여 이름을 후세에 전할지니 과거를 보러 가리라.'

하고 이날 과거에 참여했더라. 과거장에서 호명하는 소리를 들으니 자기 이름이고, 또한 김희경의 이름이라.

이때 김생이 또한 장 상서의 아들이라 함을 듣고 대경하여 생각하되,

'내 북해 갔을 때 장 상서의 아들이란 말을 믿지 않았더니, 오늘 이 말을 들으니 분명한지라. 장 소저가 나를 속임이 있던가?' 다시 생각하여 혹 동명(同名)이 있는가 의심하더라.

김생이 옥계로 향하더니 한 소년이 완완히 걸어 전상을 바라보며 오거늘, 보니 옥안영풍이 무리 중에서 빼어난지라. 생이 놀라고 기뻐함을 이기지 못하더라.

두 사람이 한가지로 어전에 이르매 상(上)이 길이 칭선하시고 제신이 칭찬 아니 하는 이 없더라. 좌우를 돌아보사 왈,

"옥을 얻었다고 진주를 버리지 못하리니 짐이 두 사람을 다 쓰고자 하니 제신의 뜻이 어떠하뇨?"

일시에 대답하되,

"폐하가 금일 기둥과 주춧돌 같은 두 신하를 얻으시니 국가의 만복이라. 신들이 어찌 뜻을 거스르리까."

상이 대열하사 즉시 두 사람을 제수할새, 김희경으로 춘방한림학사를 시키시고 장수정으로 태학사를 시키시니, 두 사람이 천은을 감사하고 물러 나오더라. 두 사람이 옥모화풍에 청삼을 입고 백마금안에 화려한 일산을 숙여 궐문을 나올새, 길에 구경하는 사람이 그 풍도 기상을 흠모하지 않은 이가 없더라. 김생이 돌아오니 평장 부부가 기뻐함이 비할 데 없더라.

장 소저 또한 돌아오매, 설낭과 영춘이 서로 맞이하여 눈을 들어 보니, 소저가 머리에 계화를 쓰고 청삼을 입고 손에 옥홀을 잡아 완완히 들어오더라. 설낭과 영춘이 서로 놀라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다만 차탄하더라. 나아와 여쭈오되,

"이제 소저의 몸이 이렇듯이 귀하시니 기쁘오며 또 듣자오니 김생도 소저와 함께 등과하였다 하오니 더욱 고금의 드문 ㉠ <u>일</u>이오나 소저는 나중에 어찌하시려 하시나이까?"

학사 쓸쓸히 대 왈,

"나의 본의 아니로되 마지못해 한 ㉡ <u>일</u>이고 부친의 원한을 풀어 주기 위함이라. 만일 ㉢ <u>일</u>을 이루면 죽어도 한이 없을지라."

영춘 왈,

"김생이 등과하매 소저는 당초 맹약을 어찌하시려 하시나이까?"

학사 왈,

"일의 기미가 이리 되었으니 설마 어찌하리오? 제가 머지않아 나를 찾아오리니 내 자연스레 대답할 말이 있으리니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라."

이튿날 장 학사가 표문을 올려 그 부친의 신원함을 청하니,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상이 그 정회에 감동하시어 즉시 상서의 애매함을 신원하여 청주후에 추증하시더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반란을 진압하고 개선한 장 소저에게 상이 공주와 혼인하라 하니, 장 소저가 당황하여 시비 영춘과 상의한다.

"소저가 이제 벼슬이 공경에 올라 위엄이 사해에 진동하시매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오마는, 첩 등의 이목이 외람하여 소저가 재상의 위풍이 당당함에도 매번 부르기를 '상공(相公)'이라 하지 않고 '소저(小姐)'라 하오니,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나 본심이 스스로 드러남이니, 마음을 꾸며 세상을 속이는 것이 실로 어려운 일이라. 바라건대 소저는 익히 살피소서. 이런 기회에 진실을 전달하여, 검은 모자를 화관으로 바꾸고 도포와 띠를 녹의홍상으로 바꾸어 규방의 아름다운 여자 되시면, 이 또한 기특한 이름이 되리니, 이러하면 후세의 칭찬을 받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만고의 비웃음을 면치 못하리니, 세 번 생각하여 한 번의 혐의를 꺼리지 마소서."

영춘의 말이 정연하고 태도에 힘이 있어 조금도 의리에 벗어난 말이 없는지라.

학사가 듣기를 다하매 밝게 깨달아 서안을 치며 차탄 왈,

[B] "어질다, 너의 소견이여. 밝고 높음이 오히려 내가 미치지 못하리로다. 그러나 애석한 것은 천하 사람이 다 나의 이름을 들으면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없더니 일조에 건곤이 바뀌어 옥당 대신이 심규 아녀자가 되니 어찌 비감하지 아니하리오. 칠 년 공명이 속절없이 되었도다."

말을 마치매 길이 탄식하더라.

- 작자 미상, 「금환기봉」 -

18. [한 소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상이 태학사 관직을 내려 주는 인물이다.
② 여러 신하가 훌륭한 인재로 평가하는 인물이다.
③ 과거 시험장에서 김희경과 나란히 호명되는 인물이다.
④ 설낭이 장 소저와는 별개의 사람으로 인식하는 인물이다.
⑤ 김생이 북해에서의 일을 떠올리는 계기가 되는 인물이다.

19. ㉠~㉢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길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의 희소성에 놀라며 기뻐했다.
② 김희경이 동의했기 때문에 ㉢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③ 영춘이 ㉠을 인식한 것은 장 소저가 ㉡을 실현하는 동기가 되었다.
④ 장 소저는 ㉡을 하기 위하여 김희경과 함께 ㉠을 이루었다.
⑤ 상은 ㉡을 수행한 인물의 간청을 받아들여 ㉢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0. '남복 입기'와 관련하여, [A], [B]의 '장 소저'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남복 입기를 허락했음을 자부하고 있다.
② [B]에서는 자신이 남복 입기를 중단하면 사람들이 이를 애석하게 여길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③ [A]에서는 처음으로 남복 입기를 시작할 것을, [B]에서는 중단했던 남복 입기를 재개할 것을 고민하고 있다.
④ [A]에서는 남복 입기를 과거 응시를 위한 조건으로, [B]에서는 남복 입기를 관직 유지를 위한 조건으로 간주하고 있다.
⑤ [A]와 [B]에서는 모두, 남복 입기를 두고 부친을 향한 윤리적 의무와 자신을 위한 사회적 성취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금환기봉」에서 주인공은 보조적 인물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장 소저와 시비 영춘은 정서적으로 밀착되어 있고, 서로 존중하며 소통한다. 영춘은 주인 보호와 수발에 충실하면서도, 자신의 의사를 적극 개진함으로써 주인이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개입하기도 한다. 그들의 모습은 때로 신분적 위계에서 오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지위나 규범에 얽매이기보다는 서로의 진심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경직되지 않은 주종 관계를 보여 준다.

① 장 소저가 급제한 것을 보고 영춘이 기뻐한 것은, 주인의 성취에 대해 반가운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영춘이 장 소저에게 정서적으로 밀착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군.
② 장 소저가 영춘의 질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한 것은, 시비의 역할을 보호와 수발로 제한하려는 규범적 태도가 드러난 것이라는 점에서, 신분적 위계에서 오는 한계를 보여 주는군.
③ 영춘이 외람됨을 알고도 주인을 '상공'이 아닌 '소저'로 부른 것은, 진심에 따른 행동을 주인이 존중했기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그들의 주종 관계가 경직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군.
④ 영춘이 장 소저에게 여성임을 밝히라고 조언한 것은, 사회적 지위가 바뀌는 선택을 권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비가 주인의 삶의 중요한 결정에 개입하는 것을 보여 주는군.
⑤ 장 소저가 영춘의 말에 깨달음을 얻고 칭찬한 것은, 주인이 시비가 한 말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들이 서로 존중하며 소통하는 것을 보여 주는군.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경주 남산 달밤에 가오리들이 날아다닌다
아닌 밤중에 웬 가오리라니

뒤틀리고 꼬여 자라는 것이 남산 소나무들이어서
그 나무들 무릎뼈 펴 ㉠둥싯, 만월이다

그럴 즈음은 잡티 하나 없는 고요의 대낮이 되어서는 꽃, 새, 바위의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고 당신은 고요히 자신의 바닥으로 가라앉을 것이다 [A]
그때 귀 먹먹하고 숨 갑갑하다면 남산 일대가
바다로 바뀐 탓일 게다

항아리에 차오르는 달빛이 봉우리까지 담겨들면
산꼭대기에 납작 엎드려 있던 **삼층석탑 옥개석**이 주욱, **지느러미** 펼치면서 ㉡저런, 저런 소리치며 **등짝 검은 가오리** 솟구친다
무겁게 어둠 **눌러 덮은 오랜 자국**이 저 **희디흰 배때기**여서
그 빛은 참 **아뜩한 기쁨**이 아닐 수 없겠다

달밤에 **천 마리 가오리들이 날아다**닌다

골짜기마다 코 떨어지고 목 사라진 돌부처
앉음새 고쳐 앉은 몸에
금강소나무 같은 굵은 **팔뚝**이 툭, 툭 **불거진다**

- 장옥관, 「가오리 날아오르다」 -

(나)

백 마리 여치가 한꺼번에 우는 소리
내 자전거 바퀴가 ㉢치르르치르르 도는 소리
보랏빛 가을 찬바람이 정미소에 실려온 나락들처럼 [B]
바퀴살 아래에서 자꾸만 빻아지는 소리
처녀 엄마의 눈물만 받아먹고 살다가
유모차에 실려 먼 나라로 입양 가는
아가의 뺨보다 더 차가운 **한 송이 구름**이
하늘에서 내려와 내 **손등을 덮어주**고 가네요
그 작은 구름에게선 **천 년 동안** 아직도
아가인 그 사람의 냄새가 나네요
내 자전거 바퀴는 골목의 모퉁이를 만날 때마다
둥글게 둥글게 길을 깎아내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 돌아온 고향 마을만큼
큰 사과가 소리없이 **깎이고 있네요**
구멍가게 노망든 할머니가 평상에 앉아
그렇게 큰 사과를 숟가락으로 파내서
잇몸으로 ㉣오물오물 잘도 잡수시네요

- 김혜순, 「잘 익은 사과」 -

(다)

말이란 거창할 필요가 없으며, **도(道)는 털끝만한 차이로도 나뉘는 법**이니, 말로써 도를 표현할 수 있다면 기와 조각이나 돌멩이인들 어찌 버리겠는가. (중략) 글을 짓는 사람은 글이 진실되었는가를 생각하면 그만이다. 이로써 보자면 글이 잘되고 못되고는 내게 달려 있고, 글을 칭찬하고 비판하고는 남의 소관이다. 이는 꼭 **이명**(耳鳴)이나 코골이와 같다.

한 아이가 뜰에서 놀다가 갑자기 '왜앵'하고 귀가 울리자 '와!'하고 좋아하면서 가만히 옆의 동무에게 이렇게 말했다.
"얘, 이 소리 좀 들어 봐! 내 귀에서 '왜앵'하는 소리가 난다. 피리 부는 것 같기도 하고 생황을 부는 것 같기도 한데 동글동글한 게 꼭 별 같단다."
그 동무가 자기 귀를 기울여 맞대어 보았으나 끝내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자, 그만 소리를 지르며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한스럽게 여겼다.

[C] 언젠가 어떤 시골 사람과 함께 잔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의 코 고는 소리가 우람하여 마치 토하는 것 같기도 하고, 휘파람을 부는 것 같기도 하고, 탄식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숨 쉬는 것 같기도 하고, 후후 불을 부는 것 같기도 하고, 보글보글 솥이 끓는 것 같기도 하고, 빈 수레가 덜커덩거리는 것 같기도 했다. 숨을 들이쉴 땐 톱질하는 소리가 나고, 내뿜을 때는 돼지가 꿀꿀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러다가 남이 흔들어 깨우자 발끈 성을 내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런 적 없소이다!"

㉤아, **자기만이 홀로 아는 경우**는 남이 알지 못할까 항상 근심하고, 자기가 깨닫지 못한 경우는 남이 먼저 깨닫는 것을 싫어하나니, 어찌 코와 귀에만 이러한 병이 있겠는가. 문장의 경우는 이보다 더 심하다. 이명은 병이건만 남이 알지 못할까 걱정하는데, 하물며 병이 아닌 것이야 **말해 무엇 하겠는가**. 코를 고는 것은 병이 아닌데도 남이 일깨워 주면 골을 내니, 하물며 병이야 일러 무엇 하겠는가.

그러므로 이 책을 보는 사람이 **기와 조각이나 돌멩이 같은 것이라도 버리지 않는다면**, 화공의 평범한 그림에서도 도적의 뻗친 귀밑털을 보듯 진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책의 독자가 이명은 듣지 못하더라도 나의 코골이를 일깨워 준다면, 그것이 내가 이 글을 쓴 의도에 가까울 것이다.

- 박지원, 「공작관문고 자서」 -

22.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나)와 달리, 의외의 상황에 의아함을 표현하면서 시상 전개를 시작하고 있다.
② (나)는 (가)와 달리, 감탄의 표현을 활용하여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③ (나)는 (다)와 달리, 현재와 미래의 상황을 대비하여 인식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④ (다)는 (나)와 달리, 특정 상황을 가정하여 변화된 시대상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⑤ (가), (나), (다)는 모두, 자연물을 활용하여 현실을 잊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3. [A]에 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그럴 즈음'은, 만월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어느새 낮으로 바뀌었음을 지각하는 순간을 가리키고 있군.
② '대낮'은, '잡티 하나 없는 고요의' 상태로서 지극히 밝으면서도 조용한 상태임을 보여 주고 있군.
③ '훤히'는, 시적 공간에 있는 대상들이 투명할 만큼 명료하게 드러나는 상황임을 나타내고 있군.
④ '바닥'은, 자신의 내면으로 침잠하는 존재가 이를 수 있는 잠잠한 상태를 형상화하고 있군.
⑤ '귀 먹먹하고 숨 갑갑하다'는, 특정한 시적 공간에 놓이게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신체적 반응을 표현하고 있군.

2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상상력은 일상의 현실을 이미지의 세계로 구성하는 데 관여한다. 그러한 점에서 시적 현실은 실재와는 다른, 창조된 현실이다. 여기에는 세계에 대한 화자의 시각이 투영되어 있다. (가)는 화자가 달밤에 탑의 덮개에서 유사한 모양의 자연물을 떠올리고 공간의 성격이 돌연 변화됨을 느낌으로써 달밤은 생명력이 가득한 환상의 바다로 전환된다. (나)는 화자가 자전거를 타면서 접한 대상들에 대한 감각적 경험과 이 과정에서 연상된 대상들을 서로 결합함으로써 마을은 삶의 애환을 감싸안는 상상의 공간으로 전환된다.

① (가)에서 '아뜩한 기쁨'인 '그 빛'은, '눌러 덮은 오랜 자국'을 지닌 가오리가 비상하여 '희디흰 배때기'를 드러낼 때 나타난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생명력에 대한 화자의 환희로 볼 수 있군.
② (가)에서 '천 마리 가오리들이 날아다'니는 남산은, '등짝 검은 가오리'가 '뒤틀'린 소나무들 사이로 날아다닌다는 점에서, 환상적이면서 어두운 바다의 이미지로 볼 수 있군.
③ (나)에서 '큰 사과'가 '깎이고 있네요'는, 골목을 도는 것을 사과 깎기로 보는 상상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마을이 '큰 사과'라는 상상의 공간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④ (가)에서 '삼층석탑 옥개석'이 '지느러미'를 펼치는 것과 (나)에서 '그 사람'이 '천 년 동안' '아가인' 것은, 각각의 시적 형상이 실재와는 다른, 창조된 현실임을 보여 주는군.
⑤ (가)에서 '팔뚝'이 '불거진다'는 것과 (나)에서 '한 송이 구름'이 '손등을 덮어주'는 것은, 각각 활력과 위로의 이미지를 상상한 화자의 긍정적 시각을 보여 주는군.

25.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도(道)는 털끝만한 차이로도 나뉘는 법'이라고 하는 데에는, 도를 드러낼 수 있다면 사소해 보이는 것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② '이명'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소리를 들어 보라고 하는 데에는, 그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들릴 것이라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③ '자기만이 홀로 아는 경우'가 생기는 데에는,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아는 것이 많아지는 경우를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④ '말해 무엇 하겠는가'에는, 자신이 아는 것을 남이 알아주지 않을까 봐 근심하는 정도가 글을 짓는 사람의 경우에 더 심할 것이라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⑤ '기와 조각이나 돌멩이 같은 것이라도 버리지 않는다면'에는, 글 읽는 사람이 거창하지 않은 것에서도 진실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26. 다음은 수업 활동의 일부이다. 학생의 답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박지원은 [C]에서 이명과 코골이의 비유를 통해 작가의 창작 및 독자의 감상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B]의 창작 및 감상 상황을 아래의 ㉮~㉯와 같이 가정하여 [C]와 연결해 볼까요?

- ㉮: 작가가 자전거 바퀴살의 움직임에서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나락이 빻아지는 듯한 바람 소리를 느꼈다.
- ㉯: 작가가 나락이 빻아지는 듯한 바람 소리를 느껴서 이를 전해 주고자 했으나, 독자는 느끼지 못했다.
- ㉰: 작가가 나락이 빻아지는 듯한 바람 소리를 시로 표현하였고, 독자는 그 표현에 공감하며 감상하였다.
- ㉱: 어떤 독자가 '바퀴살 아래'라는 시어에서 작가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희생이라는 의미를 찾아 시를 해석하였고, 이를 작가에게 알려 주었다.
- ㉲: 어떤 독자가 '바퀴살 아래'라는 시어에서 작가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희생이라는 의미를 찾아 시를 해석한 것에 대해, 작가는 그 해석을 부정하였다.

학 생: _____ 에 해당해요.
선생님: 네, 맞아요.

① ㉮의 작가의 상황은 [C]에서 아이의 귀가 '왜앵'하고 울리는 것
② ㉯의 독자의 상황은 [C]에서 동무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것
③ ㉰의 작가의 상황은 [C]에서 아이가 '소리를 지르'는 것
④ ㉱의 독자의 상황은 [C]에서 남이 시골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것
⑤ ㉲의 작가의 상황은 [C]에서 시골 사람이 '그런 적 없'다고 말하는 것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7.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소나무가 펴지는 듯한 이미지와 만월이 뜨는 이미지를 연결하여 형상화한 표현이다.
② ㉡은 대상의 움직임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③ ㉢은 계절의 풍요로움과 이와 대비되는 화자의 불안을 함께 암시하는 표현이다.
④ ㉣은 시원스러운 움직임을 꾸준하게 이어 가는 할머니의 모습을 묘사한 표현이다.
⑤ ㉤은 앞서 제시된 일화에 대한 글쓴이의 찬탄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논둑길을 걸어오는 우편배달부가 판옥이를 부르며 ㉠편지 한 장을 전했다. 판옥이는 발신인의 이름을 보면서 달리다시피 집으로 뛰어갔다.

"어디서 왔소? 아마 덕근 아배한테서 왔는감만, 저리도 좋아하게."

[A] 마누라가 방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덕근 어메도 잘 있고 덕근이 남매도 잘 있다고 했소?"

그 역시 판옥이만큼 바쁜 모양이었다.

"허 그 여편네 무척 급했네, 읽어 봐야 알지 안 읽어 보고도 아는 재주가 있는가?"

판옥이는 빙긋이 웃으며 떠듬떠듬 편지를 내려 읽어 갔다. 한참 만에야

[B] "그러면 그렇지, 우리같이 없는 놈이 어디 가면 별수 있을라고."

하고 판옥이가 편지를 접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아이고 갑갑하구만. 원 얘기나 좀 시원스럽게 해 주시오그려."

마누라는 마루로 나와서 쪼그리고 앉으며 남편의 입을 쳐다보았다.

"당초에 모든 형편이 말 아니라네."

[C] "어째서 그럴까? 지어 논 집에 논 스무 마지기씩 주고 소 한 마리씩 주고 왼통 농사 기계 다 주고 그런다는디."

"그 집이라는 것, 말이 아니래어. 방 한 간 정제(부엌) 한 간에다가 양철때기만 얹어서 집이라고 만들어 놓고 흉악한 초석 자리 한 닢에 오십 전씩 깎드라고 안 하는가?"

"저런!"

[D] "그리고 장난감같이 생긴 삽 하나, 쇠스랑 하나, 괭이 하나, 호미 하나씩 주고 농장에서 본값보다도 비싸게 깎어 버리드라네그랴."

"아갸……?"

"그것도 그렇고 왼갖 것을 다 그렇게 비싸게 감하는디 요새 안즉 땅이 덜 풀려서 일을 못 하니께 농장에서 주는 돈 십 원으로 한 달을 살어 갈랴니께 죽겄다고 덕근 어무니는 날마당 울고 있다고 안 하는가?"

"저를 어짜까? 망할 놈의 곳도 있다. 여기는 봄도 한창인디 안즉 땅이 안 풀리다니. 아니 한 사람 앞에 일백 얼마씩 기부했다더니만 왜 그럴께라우?"

[E] "흥, 당구(堂狗) 삼 년에 음풍월이라더니 작년 내— 하도 이민 이민 하고 기부 기부 하는 덕에 우리 마누라까지 썩 유식해졌네."

판옥이는 쓰디쓰게 웃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삼룡(덕근 아배)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달라는 진정서를 조선 총독부에 제출한다. 그 무렵 고향에는 가뭄이 들어 다시 사람들이 떠나가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사흘 전 삼룡은 판옥의 편지를 받는다.

삼룡이, **고향이 대체 무슨 쓸데** 있는 것인가? 자네들 보내고 나서 뚝 끊어졌던 노래가 요새는 다시 살아나서 야단이네. **정답던 고향**이건만 묵은 채로 자빠져 있는 논을 보면 인제는 **그만 정이 뚝 떨어**지고 어서 하루바삐 타관으로 가서 **고향의 참혹한 꼴**을 안 보고 싶네. 말을 들으니 자네들도 다시 고향에 오려고 생각한다네마는, 자네들이 왔자 누가 하나 반갑게 자네들을 맞아 줄 사람이 없겠네.

삼룡이, 인제 우리는 정말 죽어서 저승에 가서나 만나 보겠네. 자네나 내나 더욱 좋은 일만 하세. 좋은 일을 하면 극락에 간다고 않는가? 둘이 다 극락에를 못 가겠거든 차라리 똑같이 지옥에나 가세. **고향에서 쫓겨**나는 우리 같은 놈들에게 남는 것이 악뿐일 텐데 어찌 좋은 일을 해 보겠는가? 자네나 내나 몸만 성하면 혹시 어느 하늘 밑에서 **또 모이게 될지 누가 알 것인가**?

할 말은 태산같이 쌔고 쌨네마는 **가슴이 답답**하여 더 못 쓰겠네. 떠나기 전에 자네 답장 받아 보도록 편지나 한 장 해 주게.

㉡편지를 읽은 삼룡의 입이 씰룩씰룩 일그러지고 손이 벌벌 떨리더니만 **굵은 눈물방울**이 눈에서 **뚝뚝 떨어**져 내렸다.

그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잠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회사로 쫓아갔다. 그날 밤에 삼룡이는 판옥에게 이런 답장을 보냈다.

자네의 만지장서를 받고 나는 그냥 회사로 쫓아가서 모레 떠나기로 한 귀향 사건을 중지하고 말았네. 내가 가지 않기로 하니 동무들도 다 아니 가기로 했네.

자네는 고향을 떠나는 사람을 보고 죽어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마는 우리는 죽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차고 무정한 고향을 박차 버리고 나오는 영웅이라고 생각하네. 우리는 고향이 없는 사람들이네. 고향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슨 고향을 못 잊어 하는 설움이 있겠는가? 어디든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곳**을 우리의 **고향으로 만**드세.

너무 비감하여 말게. 맘을 든든히 먹고 두 팔을 단단히 갈아서 우리의 살아 나갈 길을 뚫어 보세.

우리는 고향이 없는 사람들이니 고향을 떠날 때 뒤도 돌아보지 마세. 앞만 바라보고 호랑이같이 사납게 나가 보세. 알아듣겠는가? 동무들에게 이 뜻을 말해 주소. 다음 또 쓰기로 하고 이만 줄이네.

㉢편지를 다 쓰고 난 삼룡의 손끝은 새로운 기운에 부르르 떨었다.

– 박화성, 「고향 없는 사람들」 –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판옥은 삼룡이 거주하는 집의 상태가 형편없다는 것이 사실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② 판옥은 삼룡이 돌아와도 반갑게 맞아 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삼룡에게 전했다.
③ 판옥의 처는 집에 들어오는 판옥의 모습을 보고 누구로부터 연락이 왔는지 짐작했다.
④ 판옥의 처는 자신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곧바로 전달해 주지 않는 남편에게 갑갑함을 드러냈다.
⑤ 판옥의 처는 땅이 풀리지 않아 농사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삼룡이네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겼다.

29. [A]~[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에서 인물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한 답은 [E]에서 나타난다.
② [B]에서 인물이 자신의 삶에 대해 자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C]에서 확인된다.
③ [C]에서 인물이 알고 있던 정보가 실상과 다르다는 것은 [D]에서 드러난다.
④ [D]에서 간접 인용을 통해 전달된 인물의 상황은 [A]에서도 확인된다.
⑤ [E]에서 인물이 관용 표현을 사용해 대화 상대를 책망하는 일은 [B]에서도 나타난다.

30. ㉠~㉢의 서사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발신인의 처지에 대한 수신인의 동정심을 환기하여, 수신인과 발신인 가족 사이의 긴장감을 완화한다.
② ㉡은 발신인의 입장을 수신인에게 전달하여, 수신인이 결정을 번복하는 계기가 된다.
③ ㉢은 발신인이 회사에 전한 내용을 수신인에게 알려, 회사와 수신인 사이의 갈등을 고조한다.
④ ㉠은 ㉡, ㉢과 달리 발신인 가족의 안부를 수신인에게 전달하여, 수신인이 가지고 있던 근심을 해소하는 실마리가 된다.
⑤ ㉠, ㉡, ㉢은 모두, 수신인이 몰랐던 정보를 전달하여, 수신인이 새로운 장소에 정착하면서 겪는 갈등을 심화한다.

3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정치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삶의 터전을 떠나온 이들, 즉 디아스포라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타향에 뿌리내릴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이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속하는지 확신할 수 없는 실존적 위기에 처하게 된다. 「고향 없는 사람들」은 일제 강점기 농민들이 고향을 상실하고 디아스포라가 되는 상황을 다루고 있다. 인물들은 고향에 대한 애착과 환멸,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의 비애와 비참함을 느끼면서도 살아 내기 위한 용기와 의지를 드러내기도 한다.

① 판옥이 '고향이 대체 무슨 쓸데'가 있냐며 '정답던 고향'에 대해 이제는 '그만 정이 뚝 떨어'졌다고 한 데서, 인물이 애착을 가졌던 고향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군.
② 판옥이 더 이상 '고향의 참혹한 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며 '고향에서 쫓겨'난다고 한 데서, 인물이 고향의 상황 변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타관으로 이주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군.
③ 판옥이 삼룡에게 '또 모이게 될지 누가 알 것인가'라고 한 데서, 인물이 떠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에도 삶의 터전을 함께 마련하기 위한 용기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④ 판옥이 '가슴이 답답'하여 '할 말'을 다 못하고, 삼룡이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리는 데서, 고향 상실을 맞닥뜨린 인물들이 비애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군.
⑤ 삼룡이 어디서든지 자신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곳'을 '고향으로 만'들자고 한 데서, 뿌리내릴 수 없는 삶에도 불구하고 인물이 살아 내기 위한 의지를 다지고 있음을 알 수 있군.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을이 점점 깊고 객회(客懷)는 쓸쓸한데
송옥이 쓴 가을 노래 초나라 소리로 높이 읊고
유 씨 박 씨 두 손님을 초초히 상대하여
무릎 겨우 움직이는 좁은 집 지으려 할새
섬 안의 모든 백성 마음 다해 일 마치니
흙 이기고 기와 나르던 창화현 풍속이로다
㉡ 격식은 못 갖췄으나 거처는 정갈하다
몸 굽히고 펴기 이제야 편안하다
감군은(感君恩) 세 글자를 벽 위에 크게 쓰고
망미헌(望美軒) 편액은 섬 안의 뉘 모르리
종일 문을 닫고 **주자의 경서**를 펼쳐 보니
의리 무궁함을 늙어서야 깨닫도다
까치는 본래 없고 까마귀 솔개만 우짖으며
험상궂게 생겨 먹은 갯마을 사내 만나 보니
들사슴의 성정이요 오랑캐의 말소리로다
상대하기 답답하니 무슨 말을 수작할꼬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중략)

하사받은 책 천 권이 **고각**(高閣)에 묵혔으니
종이 벌레 다 먹은들 그 뉘라서 볕에 쬐며
㉢ 정원에 가득한 꽃 잘라 벤들 뉘 금할꼬
천하에 호소할 데 없는 이 나밖에 또 있을까
㉣ 주 문왕 기산(岐山) 다스릴 제 인정(仁政)을 베푸시면
가련한 이내 몸이 반드시 먼저 들리
천지간 홀로 서서 사방을 둘러보니
우리 임 아니시면 누굴 **다시 의지**할꼬
시운이 불행하여 천 리를 떨어져 있으니
내 신세 홀몸인 줄 임이 모르실까
긴 소매 들고 앉아 **옛 허물**을 헤아리니
우직하기 본성이요 **망령됨**도 내 죄이오나
근본을 생각하니 임 위한 정성일세
㉤ 일월 같은 우리 임이 거의 아니 살피실까
살려 주신 이 은혜를 갚기로 기약하나
광주리 든 **가을 부채** 어느 날 다시 날꼬
맑은 새벽 혼자 누워 백두음*을 슬피 읊고
황금을 못 얻으니 장문부*를 어이 사리
연잎으로 옷을 짓고 연꽃으로 치마 지어
상자 속에 두어신들 눌 위하여 단장할꼬
고향에 돌아갈 [꿈] 벽해를 밟아 건너
옥루 높은 곳에서 밤마다 임을 뫼셔
한집같이 오가는 문답 말소리 울리는 듯
임금이 불러 문답하던 가태부가 이 같을까
어촌 멀리 닭이 울어 긴 잠을 깨어나니
우리 임 옥음(玉音)은 귓가에 완연하고
우리 임 화로 향을 옷소매에 품었어라
어느 날 이내 꿈을 생시로 삼을런가 **[A]**
두어라 **왕께서 고쳐 헤아리길** 날마다 바라노라

– 이진유, 「속사미인곡」 –

* 백두음 : 한의 탁문군이 첩을 들이려는 남편에게 부른 노래.
* 장문부 : 한 무제의 총애를 얻고자 황후가 황금을 주고 얻은 시.

32. ㉠~㉤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은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여, 화자의 적적한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② ㉡은 새로 마련한 공간의 특징을 밝혀, 화자의 불편함이 완화됨을 드러내고 있다.
③ ㉢은 의문형 종결 표현을 통해,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④ ㉣은 고사를 바탕으로 상황을 가정하여, 화자의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⑤ ㉤은 임을 자연물에 비유하여, 화자와 임의 정서적 유대감이 심화됨을 나타내고 있다.

33. [꿈]을 중심으로 [A]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연잎으로 옷을 짓고'에는 꿈에서 임에게 전할 물건을 현실에서 마련하고자 하는 연정이 드러난다.
② '눌 위하여 단장할꼬'에는 꿈에서와 달리 현실에서는 누구를 위해 단장해야 할지 몰라서 느끼는 혼란이 드러난다.
③ '말소리 울리는 듯'에는 꿈에서의 경험이 현실에서도 이어지는 듯한 착각이 드러난다.
④ '귓가에 완연하고'에는 꿈에서 함께한 임이 현실에서도 자신을 위로하는 데 대한 고마움이 드러난다.
⑤ '생시로 삼을런가'에는 꿈에서 경험한 임과의 만남을 현실에서는 이루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애절함이 드러난다.

3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속사미인곡」은 낯선 섬에 유배된 사대부 작가의 유배 가사이다. 유배형은 학문을 닦고 백성을 다스리던 사대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한다. 형의 종결은 임금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유배객의 삶은 불안하다. 「속사미인곡」의 화자는 임금과 함께했던 과거를 그리워하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가운데 심적 고통을 토로한다. 이는 모두 사대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정신적 고투이다.

① 화자가 '주자의 경서'를 펼쳐 보는 한편 '고각'에 있는 책을 염려하는 데서, 자유롭지 못한 유배지에서도 사대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을 엿볼 수 있군.
② 화자가 '천지간 홀로' 있는 낯선 섬에서 '다시 의지'할 대상이 '우리 임'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데서, 임금과 함께했던 과거를 그리워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군.
③ 화자가 '내 신세 홀몸'임을 임이 모르지 않을 것이라 추측하고 '왕께서 고쳐 헤아리길' 염원하는 데서, 임금의 새로운 정치적 판단을 소망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군.
④ 화자가 '옛 허물'을 헤아리며 '망령됨'이 죄라고 밝히는 데서, 자신이 죄를 저지른 동기를 부끄러워하는 심적 고통을 엿볼 수 있군.
⑤ 화자가 자신을 '가을 부채'에 빗대며 '광주리'에서 벗어날 때를 몰라 한탄하는 데서, 유배객으로서의 삶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에 느끼는 불안감을 엿볼 수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에는 빛깔을 나타내는 말, 즉 '색채어'가 발달되어 있다. 색채어는 '붉다', '빨강'처럼 특유한 빛깔을 나타낸다. '짙다, 옅다, 어둡다, 밝다' 등은 특유한 빛깔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색채어가 아니다.

현대 국어의 색채어 형용사에는 '검다/감다, 희다, 붉다, 푸르다, 누르다/노르다' 등이 있는데, 이들은 각각 15세기 국어의 '검다/감다, 희다/힌다, 븕다/붉다, 프르다/픈ᄅᆞ다, 누르다/노ᄅᆞ다'에서 비롯하였다. 현대 국어의 색채어 명사에는 고유어인 '검정, 하양, 빨강, 파랑, 노랑' 등뿐 아니라 고유어가 아닌 '초록, 보라' 등도 있다. 현대 국어의 색채어에서는, 하나의 어근 안에 있는 자음이나 모음이 바뀌어 의미가 달라지는 현상, 즉 자음 교체나 모음 교체로 인한 단어의 짝이 관찰되기도 한다(예: 발갛다/빨갛다, 벌겅/빨강).

15세기 국어에는 색채어 형용사 어근에 '-아/어 ᄒᆞ다'가 결합하여 형성된 색채어가 있었다. 이들에서 비롯한 말은 현대 국어에서 불규칙 활용을 하는 형용사로 쓰인다(예: 거머ᄒᆞ다 > 거멓다). 15세기 국어의 색채어 형용사 어근에 '-아/어 ᄒᆞ다'가 결합하여 형성된 말은 아니지만 현대 국어의 '푸르다', '누르다/노르다'도 불규칙 활용을 한다.

색채어가 합성, 파생, 자음 교체, 모음 교체 등을 통하여 형성되면, 그 의미도 다양해진다. 서로 다른 두 색채어의 어근을 연결 어미 없이 결합할 때, 선행 어근은 후행 어근이 나타내는 빛깔의 밝거나 어두운 정도를 나타낼 수 있다(예: 희붉다). 연결 어미 '-디'를 사용하여 어근을 반복하면, 색채어 어근이 나타내는 빛깔이 매우 선명함을 나타낼 수 있다(예: 검디검다). 접사 '새-/시-' 등은 색채어 형용사 어근이 나타내는 빛깔이 더 선명하다는 의미를 더하고(예: 새빨갛다), 접사 '연(軟)-'은 색채어 어근이 나타내는 빛깔이 덜 선명하다는 의미를 더한다(예: 연푸르다, 연초록). 그리고 색채어 단어 짝에서 자음이 경음이나 격음일 때에는 평음일 때보다 더 짙은 느낌을 주고, 색채어 단어 짝에서 모음이 음성 모음일 때에는 양성 모음일 때보다 더 어두운 느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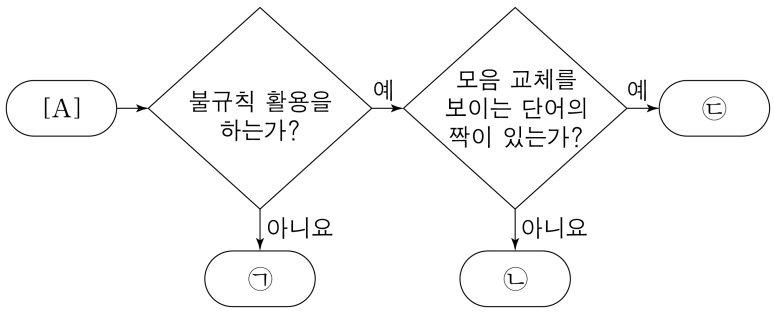
35.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색채어 '검붉다'와 '짙붉다' 각각은 서로 다른 두 색채어의 어근이 연결 어미 없이 결합한 예로 들 수 있겠군.
② 색채어 명사가 나타내는 빛깔이 더 선명하다는 의미를 더하기 위하여, '시뻘겋다'에 쓰인 접사를 사용할 수 있겠군.
③ 색채어 형용사가 나타내는 빛깔이 덜 선명하다는 의미를 더하기 위하여, '연보라'에 쓰인 접사를 사용할 수 있겠군.
④ 색채어 '발갛다'와 '파랑'보다 더 짙은 느낌을 주는 각각의 단어 짝을 현대 국어에서 찾을 수 있겠군.
⑤ 색채어 '파랗다'와 '붉디붉다'보다 더 어두운 느낌을 주는 각각의 단어 짝을 현대 국어에서 찾을 수 있겠군.

36. 윗글을 바탕으로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A]는 [자료]의 ⓐ~ⓒ에서 비롯한 현대 국어의 색채어이다. [A]를 아래 그림에 따라 분류할 때, ㉠~㉢에 해당하는 것이 [자료]의 ⓐ~ⓒ 중에 무엇에서 비롯한 것인지를 알아보자.



[자료] 색채어가 쓰인 15세기 국어 자료

○ 雲霧ㅣ ⓐ 누러ᄒᆞ도다(누르-+-어 ᄒᆞ-+-도-+-다)
[구름과 안개가 누렇도다]
○ 버듨 가지ᄂᆞᆫ ⓑ 프르고(프르-+-고)
[버드나무의 가지는 푸르고]
○ 片雲이 머리 우희 ⓒ 거므니(검-+-으니)
[조각구름이 머리 위에 검으니]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37.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자기'는 담화에서 앞서 언급된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대용 표현으로 쓰일 수 있다. ㉠ 대용 표현인 '자기'가 가리키는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언어적 맥락에 따라 특정한 한 사람만으로 한정되는 경우도 있고 특정한 한 사람만으로 한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① A: 민희가 학급의 봉사 활동 대표로 자원했더라.
B: 맞아. 자기의 올해 목표 중 하나였대.
② A: 애들이 떠들썩한 걸 보니 무슨 연락이 왔구나?
B: 응. 현서가 지후한테서 자기가 합격했다고 들었대.
③ A: 늘 앞장서서 친구들을 챙기는 승우한테 감동했어.
B: 나도. 자기에게 손해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더라.
④ A: 지원자가 많던데, 순호의 면접 결과는 안 나왔어?
B: 아직. 순호가 초조해하며 자기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⑤ A: 윤주가 정수를 이제는 안 좋아해서 그만 만나고 싶대.
B: 저런. 정수는 윤주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던데.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38.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선생님**: 한자어에서 종성 'ㄹ' 뒤에 평음이 연결될 때, 평음이 경음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현상은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예외 없이 발생합니다. 첫째, 한자어일 것, 둘째, 단어를 이루는 음절이 두 개일 것, 셋째, 첫음절의 종성 'ㄹ' 뒤에 'ㄷ, ㅅ, ㅈ'이 연결될 것입니다. 이러한 음운 변동을 '한자어 'ㄹ' 뒤 경음화'라고 부를 수 있어요. '활동', '필승', '일정'처럼 'ㄹ' 뒤의 평음이 항상 경음으로 바뀌는 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 **학 생**: 그러면 '결격'은 두 번째 음절의 초성이 경음으로 발음되었는데, 이 단어는 '한자어 'ㄹ' 뒤 경음화'가 적용된 것이 아닌가요?
>
> **선생님**: 좋은 질문이에요. '결격'은 '한자어 'ㄹ' 뒤 경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럼 아래의 단어들 중에서 '한자어 'ㄹ' 뒤 경음화'가 적용된 단어와 적용되지 않은 단어를 하나씩 골라 말해 볼까요?
>
> 결심(決心)[결씸], 골격(骨格)[골격], 발전(發展)[발쩐], 별건(別件)[별껀], 설득(說得)[설뜩], 월권(越權)[월꿘], 율격(律格)[율껵], 율법(律法)[율뻡], 출발(出發)[출발], 탈법(脫法)[탈뻡]
>
> **학 생**: [A] 입니다.
>
> **선생님**: 네, 맞아요.

① '별건'과 '율법'　② '발전'과 '결심'
③ '설득'과 '월권'　④ '율격'과 '출발'
⑤ '탈법'과 '골격'

39. ㉠~㉢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은 '멍이'이다. ㉠내가 멍이와 친구처럼 지낸 지 오늘로 두 달이 되었다. 멍이가 요즘 장난감에 흥미를 보이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멍이 장난감 고르기를 가장 먼저 수행할 과제로 정했다. ㉢멍이야, 넓은 공원에서 나랑 재미있게 놀자. 멍이야, 사랑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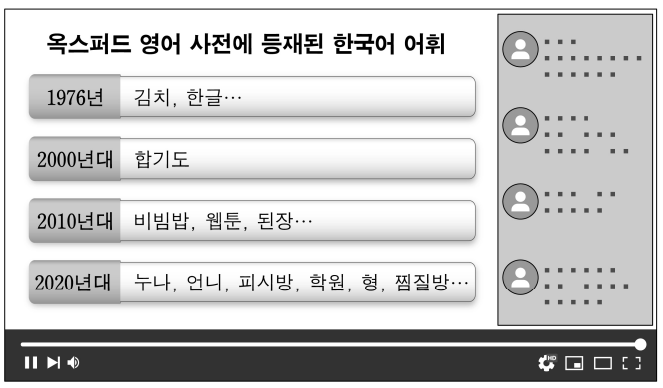
① ㉠의 보어와 ㉡의 필수적 부사어에는 각각 관형어가 있다.
② ㉠의 관형어는 문장을 이루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의 부사어는 문장을 이루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는 않는다.
③ ㉠에는 주어가 있는 안긴절이 있고, ㉡에는 목적어가 있는 안긴절이 있다.
④ ㉠과 ㉢에는 각각 필수적 부사어가 있는 안긴절이 있다.
⑤ ㉡에는 관형어가 있는 안긴절이 있고, ㉢에는 관형어가 있는 안긴절이 없다.

[40~43] (가)는 실시간 인터넷 방송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학생이 만든 카드 뉴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안녕하세요. 지식 전문 채널 '오늘의 똑똑'입니다. 혹시 '먹방'이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등재된 것을 아시나요? '먹방' 외에도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다수의 한국어 및 한국 관련 어휘들이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볼게요. ㉠<u>자, 그럼 자료를 보면서 시작해 볼게요.</u> (자료 화면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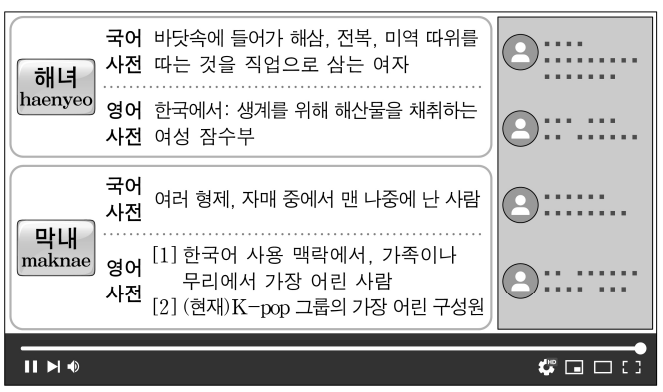
1976년에 '김치'를 포함한 6개의 한국어 어휘가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표제어로 처음 등재됐습니다. 그 후 2000년대에 1개, 2010년대에 8개, 그리고 2020년대에는 40개 이상의 한국어 및 한국 관련 어휘가 새로 등재되어, 현재까지의 누적 표제어 수는 60개 이상입니다.

꿈나무 뉴스에서 봤는데, 2021년도에만 26개가 등재됐대요. K-pop도 포함됐다는데, 앞으로 더 많은 어휘가 등재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진행자 화면으로 전환) 꿈나무 님 말씀처럼 'K-pop', 'K-drama' 같은 한국 관련 어휘들도 등재됐고, 'K-' 또한 표제어로 등재됐어요. 이는 한국 관련 어휘들이 향후에도 형성되어 등재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다롱디리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등재된 어휘를 다시 알려 주실 수 있나요?

다롱디리 님, 오늘 방송에서 소개되는 모든 자료를 방송이 끝나고 '오늘의 똑똑' 채널 게시판에 올려 둘게요. 이어서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등재된 한국어 어휘의 의미가 사전에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볼까요? (자료 화면으로 전환)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화면 상단의 '해녀'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가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서 표현만 조금 달라졌을 뿐 의미가 거의 그대로 유지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화면 하단의 자료를 보세요. '막내'는 '해녀'와 달리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없는 의미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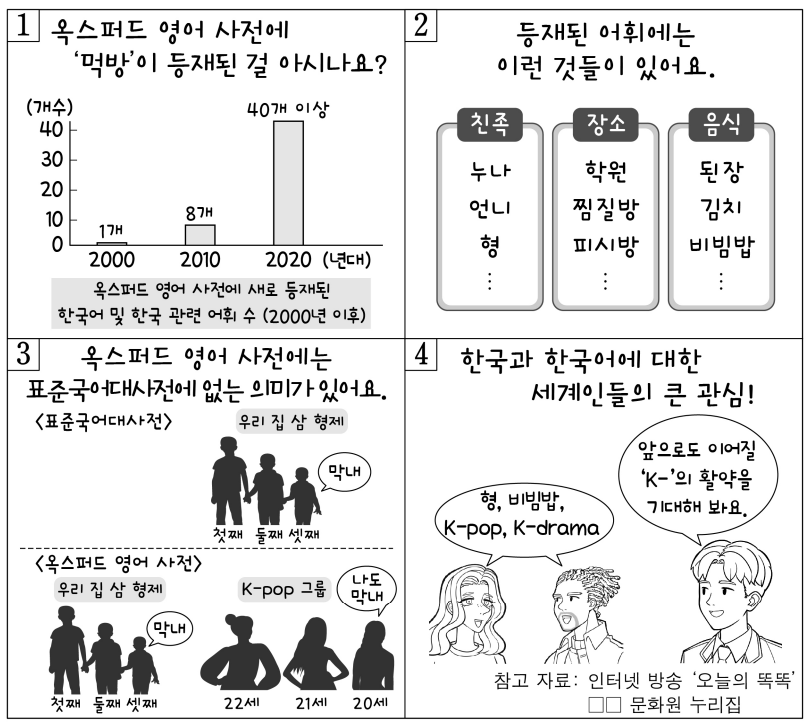
강물 아까 화면에서 본 '언니'도 여기에 해당할 것 같은데, 맞나요?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등재된 다른 친족어들의 의미도 인터넷으로 찾아봐야겠어요.

(진행자 화면으로 전환) 강물 님, '언니'도 좋아하는 여자 배우나 가수를 가리킬 때 사용된다는 의미가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막내'와 유사합니다. ㉡이처럼 어휘의 의미는 그 어휘를 수용하는 사람들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어휘를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도 유익했나요?

햇살가득 우리말에 자부심을 갖게 한 의미 있는 방송이었어요. 친구들에게 방송 내용을 알리기 위해 카드 뉴스를 만들어 학교 누리집에 게시하려고요. 방송 내용을 참고해도 될까요? 출처는 꼭 밝힐게요.

햇살가득 님, 얼마든지요. 혹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은 분은 제가 '더 보기'란에 □□ 문화원 누리집 주소를 하이퍼링크로 올려 둘 테니 방문해 보세요. ㉤이 방송이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40. (가)에 나타난 정보 전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막을 제시하여, 방송에서 다룰 중심 화제를 안내하고 있다.
② 게시판에 자료를 제공하여, 시청자가 자료를 방송 중에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다.
③ 하이퍼링크를 공유하여, 시청자가 요청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경로를 안내하고 있다.
④ 자료 화면을 상하로 분할하여, 시청자들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⑤ 진행자 화면을 자료 화면으로 전환하여, 진행자가 앞서 언급한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41. (가)를 바탕으로 (나)를 제작하기 위한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① (가)에서 진행자가 발화를 통해 제시한 수치를, 그래프로 표현해야겠군.
② (가)에서 진행자가 방송의 도입 부분에서 언급한 내용을, 카드 뉴스의 시작 부분에서 제시해야겠군.
③ (가)에서 진행자가 동일한 어휘의 사전별 의미 차이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그림과 문자를 활용해 구성해야겠군.
④ (가)에서 진행자가 어휘의 형성과 관련해 언급한 표제어를, 어휘의 사회·문화적 의미 차이를 보여 주는 사례로 활용해야겠군.
⑤ (가)에서 진행자가 시대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자료 화면에 명시한 어휘 중 일부를, 새로운 기준으로 재분류해서 작성해야겠군.

42. (가)에 드러난 시청자의 반응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꿈나무'는 등재된 어휘의 개수에 대해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정보를 보충하고 있다.
② '꿈나무'는 어휘의 추가 등재 가능성과 관련하여 진행자가 제공한 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③ '강물'은 방송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자신이 추측한 것이 맞는지 진행자에게 확인하고 있다.
④ '강물'은 친족어들의 의미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하려 하고 있다.
⑤ '햇살가득'은 방송 내용이 지닌 의의와 관련하여 방송 내용을 친구들에게 소개하려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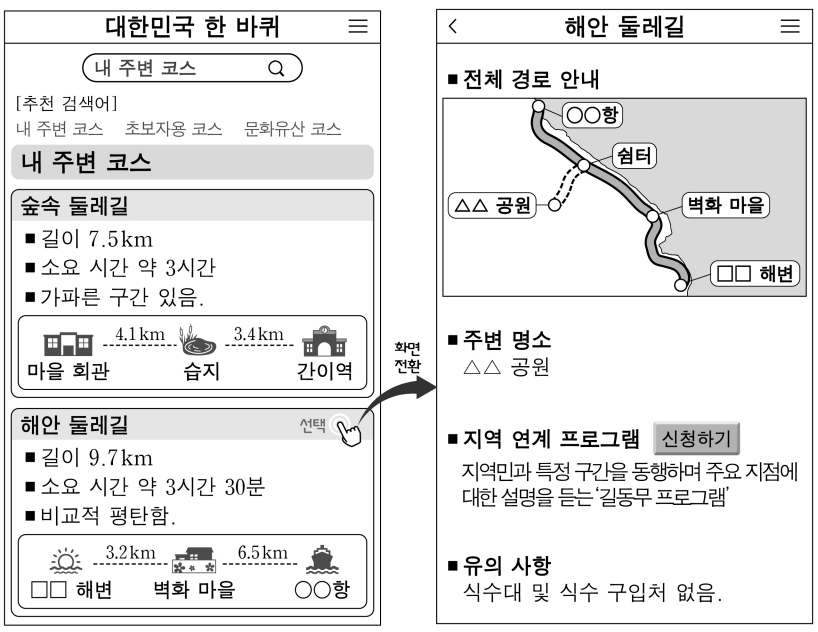
4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면서'를 사용하여, 자료를 보는 것과 설명을 시작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남을 나타내고 있다.
② ㉡: '-ㄹ 수 있다'를 사용하여, 어휘 수용자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어휘 의미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③ ㉢: '-겠-'을 사용하여, 시청자가 어휘를 직접 찾아보기 바람을 완곡하게 나타내고 있다.
④ ㉣: '-나요'를 사용하여, 방송에서 다룬 내용이 유익했는지에 대해 시청자를 높이며 질문하고 있다.
⑤ ㉤: '-었으면'을 사용하여, 시청자가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확신함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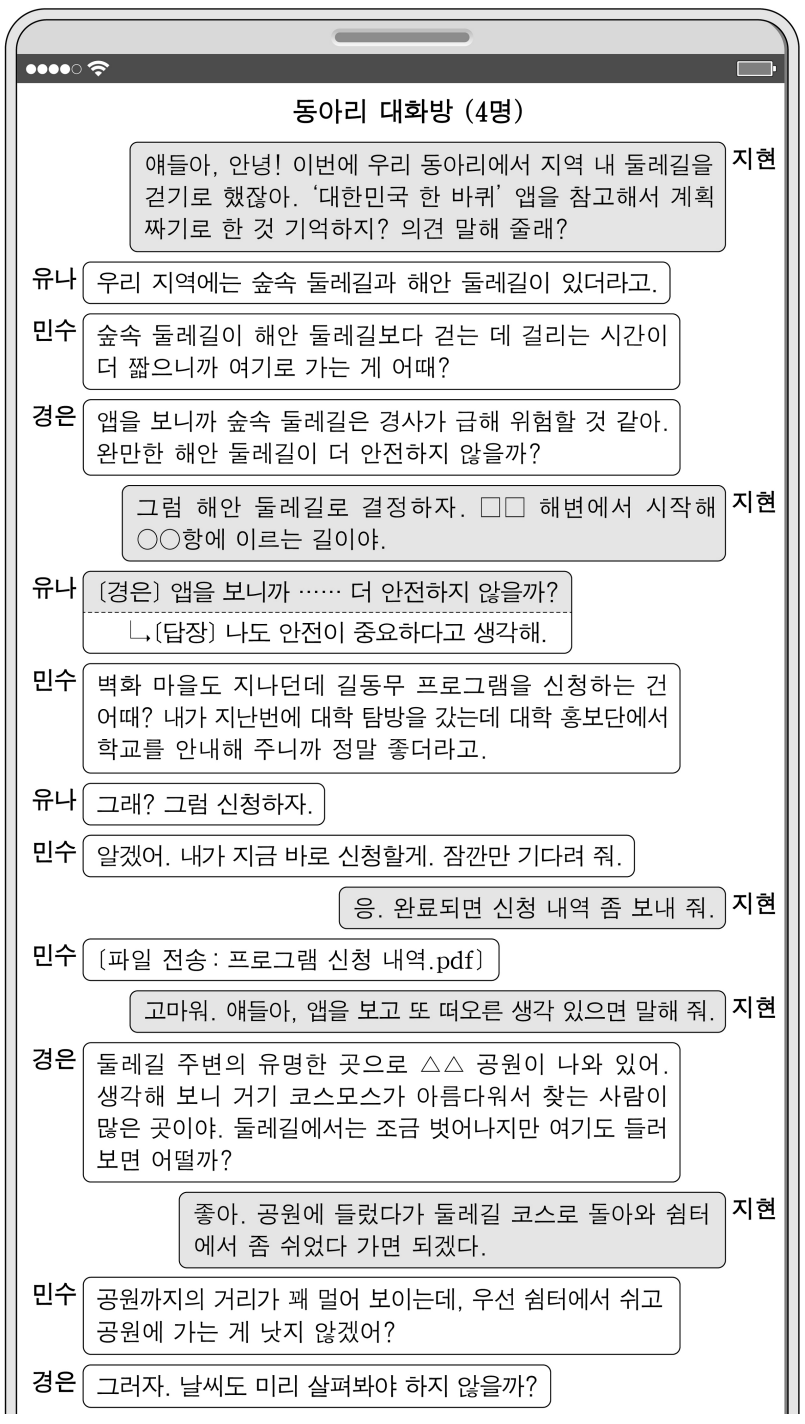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44~45] (가)는 둘레길 안내 앱 화면의 일부이고, (나)는 (가)를 참고하여 지역 탐방 동아리 학생들이 나눈 누리 소통망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44. (가)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유나'는 (가)의 '유의 사항'에 주목한 후, 날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준비물을 언급하고 있다.
② '경은'은 (가)의 '주변 명소'에 주목한 후,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떠올려 경유지를 제안하고 있다.
③ '경은'은 (가)의 '내 주변 코스'에 주목한 후, 경사가 완만하다는 정보를 고려하여 소요 시간이 짧은 코스를 제안하고 있다.
④ '민수'는 (가)의 '전체 경로 안내'에 주목한 후, 경유지까지의 거리를 고려하여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로를 제안하고 있다.
⑤ '민수'는 (가)의 '지역 연계 프로그램'에 주목한 후, 참여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환기하여 프로그램 신청을 제안하고 있다.

45. (나)에 나타난 매체 활용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투표함' 기능을 활용하여, 대화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합하고 있다.
② '파일 전송' 기능을 활용하여, 대화 참여자가 요청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③ '답장' 기능을 활용하여, 대화 참여자가 제시한 의견에 동의를 표현하고 있다.
④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대화 참여자가 언급한 내용에 관한 정보를 찾아 제시하고 있다.
⑤ '예약 메시지' 기능을 활용하여, 추후 논의할 사항을 대화 참여자들에게 전달할 시점을 지정하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